

광주 재개발사업서 외면받는 지역 건설사

대기업 브랜드에 밀려 재건축·재개발 수주 절반이상 내줘
광천동 등 대규모 재개발 시공 대형건설사간 각축
“지역경제와 시너지 효과 위해 경쟁력 인정 품도 마련돼야”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광주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공사에서 대기업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에 우위를 보이고 있어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전국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유독 안방에서 외면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새겨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7일 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최근 광주 지역 최대 규모로 전국적 관심을 받는 서구 광천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 수주 경쟁 구도가 대형건설사 2파전으

로 치러지는 등 지역 중견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다.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프리미엄사업단과 퍼스트사업단 2곳이 참여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대림산업·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금호산업 컨소시엄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대형건설사들로 구성됐다. 퍼스트사업단은 쌍용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으로 꾸려졌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들도 충분히 건설할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도 있어서 이런 지역업체들을 통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 받아 재개발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광주 지역 대형 재개발지구로 이익을 모았던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인 대림산업-GS건설-롯데건설-SK건설-한양빛고을드림사업단이 선정됐다. 지역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가 자칫 저평가하면서 품질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주장했다. 더욱이 활발해진 광주 지역 재개발과 재건축의 효과가 지역 경제에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인정하는 지역의 품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지난해만 전국에서 4만6000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정도로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기업들과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3년에는 세종 신도시 공급물량의 71%를 지역 건설사들이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다. 지역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가 자칫 저평가하면서 품질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주장했다. 더욱이 활발해진 광주 지역 재개발과 재건축의 효과가 지역 경제에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인정하는 지역의 품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63.58 (+20.56) ▲ 금리 (국고채 3년) 1.76% (+0.01)
- ▲ 코스닥 672.17 (+12.97) ▼ 환율 (USD) 1170.40원 (-3.70)



광주국제청 전주서 현장 소통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17일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맞아 전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전라북도상공회의소합의회(전주, 군산, 익산, 정읍) 회장 등 임원들과 세정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여수국가산단 혁신 정책포럼 오늘 창립 총회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혁신산단 추진을 위한 정책포럼이 발족한다.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에 따르면 여수산단이 지난해 12월 혁신산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후산단 혁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여수산단 창의혁신 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혁신사업 비전선 포식'을 오는 18일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대학 총장, 입주기업체 등 지역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3부로 나눠 진행되는 행사의 1부에서는 창의혁신 정책포럼 창립총회를 열어 운영 회칙을 채택하고 포럼 회원 확정과 공동대표 임원 선임 등을 할 예정이다. 이어 노후화한 여수산단의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과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2부에서는 여수산단 혁신사업 비전선 포식과 관계기관 공로패 수여식, 3부에서는 여수산단 창의혁신 정책포럼 등으로 이어진다. 한편 혁신산단은 2013년 대통령주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노후 산단을 창조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빛가람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협약식



한전,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
한국전력은 17일 오전 본사 비전홀에서 한전KDN, 지자체와 세방전지(주) 등 총 20개사와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임수경 한전KDN 사장, 우범기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박광희 세방전지(주) 대표,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 '에너지 허브' 초석 다졌다

대호전기 등 20개 기업 추가...본사 이전후 77개사 유치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7일 오전 본사 비전홀에서 한전KDN, 지자체(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함께 세방전지(주) 등 3개 대기업, 외국기업인 GE코리아와 한국알프스(주), 대호전기(주)를 비롯해 중소기업 12개, Start-up 및 연구소기업 등 총 20개사와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식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투자협약을 체결한 20개 기업 중 14개 기업(70%)이 에너지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해 의미를 배가 시키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품을 구축하고자 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전략과 일치하는 것으로 에너지밸리 조성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기업, 외국기업, 중소기업, Start-up, 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함에 따라 이들 기업간에 창조적 협력과 임종별 기술융합으로 에너지밸리 조성의 시너지 제고와 자생기반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은 이번 협약기업 20개 기업을 포함해 본사이전 후 총 77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2016년까지 유치목표 100개의 77%, 2020년까지 유치목표 500개의 15.4%를 달성해 에너지

쌀값에 맞먹는 양파값

10kg 2만3천330원...국내쌀 10kg 23000원과 비슷

전년보다 3배 올라
양파값이 그야말로 금값이다. 식당에서 반찬으로 나오는 양파를 추가해 달라면 식당 주인 눈치를 봐야 할 정도다. 광주에서 돼지고기 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17일 “양파값이 지난해보다 3배가량 올랐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 양파가 들어가는 반찬을 만들기가 겁날 정도”라고 말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양파(상품기준) 도매 가격은 kg당 1천622 원으로 지난해 514원보다 3배가량 올랐다. 평년 가격(최근 5년간 최고·최저 가격을 뺀 평균 가격·905원) 보다는 79.2% 상승했다. 지난 16일 기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시한 양파 평균 소비자 가격은 kg당 2330원이다. 10kg로 환산하면 2만3천330원이다. 전남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거래되는 국내쌀 10kg 가격(통상 2만3000~4000원)과 엇비슷하다. /연합뉴스

1319송정역시장 “청년 상인 찾습니다”

광산구, 30일까지 모집
광주시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구) 송정역전매일시장이 시장내 창업을 원하는 만 39세이하 청년 상인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상인 모집 인원은 36명이며,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 만 39세이하 창업예정자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 특성을 살려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비전포 입점자 10명과 매주 토요일 야시장을 이끌 청년 26명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
월 수익 (1,02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7억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상무지구 5층, 90평>
→ 5층전용, 90평
즉시입주가 / 시설완비
(주차2대 무료)
(시비 약간 있음)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우리은행 뒷)
→ 보 2천, 월 130만

신축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신축 상가원룸 (4면 대리석시공)
1층 (상가,1칸)
2층~3층 (룸10개)
4층 (주택)
월 수익 (450만)
(보 4,000만, 용 1억)
→ 매가 6억9천

법률경매

-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 건 904평) →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1층상가, 120평~2~7층 룸 60개~8층, 주택겸사무실) ☆ 분할등기가능 (향후 60억가치있음) ☆ 임대수익 (보 3억, 월세 3천만) (12월 1일) 경매일
감정가 35억4천 → **24억8천**
- 서구 농성동 (토 86평, 건 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약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서구 ki지사 부근
- 광산구 남산동 (토 258평, 건 150평) 감정가 4억8천 → **최저가 2억1천** → 1층(제조업,냉동창고) 2층 (사무실)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법무실론 경매건설링 교육
경매 물건 추천
1.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토 44평, 건166평)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2억5천**
2. 북구 신안동 (근린주택) (토53평, 건 140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3. 서구 쌍촌동 (속박시설) (토 90, 건364평) 감정가 12억2천 → **최저가 8억5천6백**

※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억) (10억~100억)

수익성 상가 (근린시설,통건물)

- 수원지구 (우미린A.P.T 앞) 4층건물 (매지 144평, 건 260평) → 매가 17억
- 상무지구 5층건물 (우리은행) 금융가렛 (월수익 1,000만 - 보2억,용9억) → 매가 20억
- 상무지구 상가 5층건물 (롯데마트앞) (매지 122평, 건423평) → 매가 28억
-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 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5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월90만) (용 5천) → 매가 1억1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 상무지구 정면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1천,월6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리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보5백,월 45만- 임대완료) → 매가 8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 옆 (용4천)보5백,월 42만 → 매가 7천5백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옆 (용2천)보3백,월33만 → 매가 4천5백만
- 나주 상영동 2층 상가 매매 (나주혁신도시10분,나주시청2분) (보2천,월200만) → 매가 3억

신축원룸 매매 (상가겸용)

-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 용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 광양 광명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 매가 3천8백만
- 서구 쌍촌동 대문파크 2층(11평) 운전역(번출구 3분) (용2천)보3백,월32만 → 매가 3천6백만

010-7384-7800

010-6670-9800

062-382-5500, 010-6832-9700